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연장 골든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는 반지에 키스를 하는 인상적인 세리머니와 함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랬던 그였지만, 국내 K리그로 복귀하여 수원 삼성 선수로 뛸 때 경기 도중 FC서울 팬들의 야유를 받고 상대팀 관중석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말았다.

서울 연고의 팬들은 단호했다. 월드컵 때는 국가대표팀에 승리를 안겨 준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겠지만, K리그에서의 안정환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상대해야 할 적군의 일원일 뿐이었다. '우리'의 영웅이 '남'의 원수로 바뀐 것이다.

우리가 '선'이면 타자는 무조건 '악'이어야 하는가. 철학자 리처드 커니 교수는 우리 스스로를 정



19세기 조선의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명분은 살렸는지 모르지만 외래 문물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지켜야 할 바른 것은 성리학적 전통이었고 물리쳐야 할 사악한 대상은 천주교와 서양 문물이었으나, 고루한 보수적 인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무조건 감싸 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척할 수도 없는 타자에

괴물과 함께 사는 법

상성(normality)이라 규정하고 타자는 모두 '악'이라 인식하는, 배타적이고 적대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방인, 신, 괴물'은 타자를 논하는 주요 키워드로, 타자라는 이방인은 신이면서 괴물이라는 뜻이다.

이방인은 상대적 개념이다. 인간은 본디 스스로의 세계를 인식하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 신성과 악마성의 경계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존재이다.

상대적 타자와 절대적 타자라는 두 이방인은 서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타협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개방성을 내걸 때 진정한 힘이 된다. 유대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은 예루살렘 콘서트에서 나치정권의 선전도구였다는 이유로 바그너 연주를 반대하는 청중들을 설득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타자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강해진다는 길을 가르쳐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사고에 의해 타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됐을 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다. 타자라는 괴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이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 매카시의 블랙리스트,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 뉴욕의 9·11테러 같은 참극이 되풀이됐다.



정 강 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마지막 4종주’ ‘언어의 정원’ ‘라 담스’ ‘길 위에서’ ‘패션, 위험한 열정’

광주극장·CGV무비꼴리쥬 상영



'언어의 정원'

작은 영화들이 작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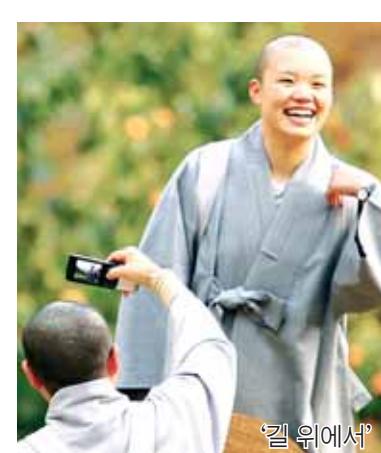
명품배우들의 감성 화음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다큐

비구니들 일상 백향암 사계

:

색다른 감수성 만날 기회



‘숨바꼭질’ ‘감기’, ‘설국열차’, ‘더 테러 라이브’

을 예를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주(16~18일) 네 편이 끌어들인 관객은 350만명에 달한다.

올 여름에는 ‘마지막 4종주’, ‘길 위에서’ 등 ‘작은 영화’들의 악진도 눈에 띈다. 어렵게도 흥행왕이 많다 보니, 작은 영화들이 걸릴 스크린은 거의 없다. 다행히 광주에서는 광주극장과 올해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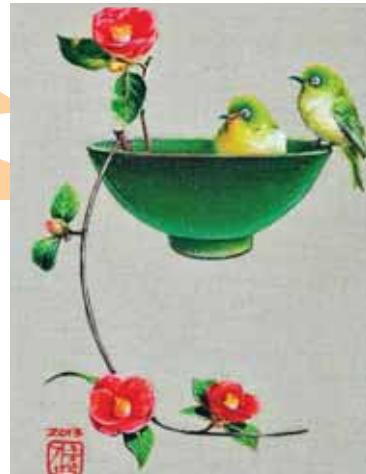
문을 연 CGV 광주 무비꼴리쥬에서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7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마지막 4종주’는 결성 25주년 기념 공연을 앞둔 세계적인 현악 4중주단 ‘푸가’를 통해 삶을 들여다본 극영화다.

리더 피터가 파기순병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25년을 함께 해온 단원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내며 인생을 돌아본다. 예술가로, 부모로, 친구와 연인으로, 스승과 제자로 다양한 위치에 선 이들의 삶은 조금씩 다르지만 곧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 누



香



군가를 질투하고 인생의 많은 걸 걸었지만 어느 순간 허무해지고, 사랑과 우정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주가 단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곡 14번’ 등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영화 내내 흐른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압권이다.

‘가포티’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이끈 필립 시모어 호프먼, ‘니어 헌터’의 노장 배우 클리스토퍼 월켄 등의 연기는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마지막 연주회 장면에 선 눈시울을 묻히는 관객들이 많다.

‘초속 1미터’ ‘별을 쓰는 아이’를 만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 런닝 타임 47분의 짧은 영화지만 울림은 크다. 구두 디자이너가 되고픈 16살 소년과 공원의 정원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점원과 도시의 풍경 등을 세밀하게 잡아낸 화면은 손에 잡힐 듯하고 사각 사각 움직이는 연필 소리, 연못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나뭇잎에 엿힌 햇살까지 모두 마음을 건드린다.

또 상영 내내 흘러나오는 피아노곡은 아름다운 화면과 어우러지고 주인공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마지막에 흐르는 주제가 ‘레인(rain)’도 좋다.

/김민경 기자 mekim@kwangju.co.kr

김종국 초대전, 30일까지 갤러리 아크

등으로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특히 도자기에서 뻗어나가는 화려한 꽃과 새들이 품어내는 기운은 마치 전통 화조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화사함이 지나치지 않는 기품과 함께 편안함과 진솔함이 물어난다는 것이다.

“값비싼 명품에 대한 막연한 애호

와 화려함에 현혹된 가벼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안에 이어 내려온 문화와 그 내면의 담백한 미를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을 그림에 담아 두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서울, 남원 등에서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671-1238.

/김민경 기자 kki@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 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제이팅 나당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061-375-2383
HP. 010-6656-0002

